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2>

“정업 쌓으면 정토에 날 수 있다”

(이어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외 치기를 “월운아, 그대는 이런 시기에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느냐.” 한다며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세계관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는 여행자에게는 안내서(案内書)와도 같고 집을 지으려는 이에겐 설계도(設計圖)와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화제(話題)를 ‘경전속의 세계’로 잡았다.

그간 내가 아는 바로는 경전 속의 세계를 대중 세 유형(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삼천대천세계설(三千大千世界說)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現實世界)와 가장 많이 비슷한 예토화신불토(穢土化身佛土)요, 둘째는 향수해설(香水海說)이니, 화엄(華嚴)회상(會上)의 노사나불(盧舍那佛)께서 시현(示現)하신 법보신토(法報身佛土)요, 셋째는 정토설(淨土說)이니, 타방불(他方佛)의 원력으로 화현(化現)하신 정토화신불토(淨土化身佛土)여서

樂이 지성(熾盛)한 곳이란 뜻이다.

이 육계 위에는 범중천(梵衆天) 범보천(梵輔天) 대법천(大梵天) 등이 있으니 이 세 하늘을 초선천(初禪天)이라 하고 그 위에 소광천(少光天) 무량광천(無量光天) 광음천(光音天) 등이 있으니, 이 세 하늘을 이선천(二禪天)이라 하고, 그 위에 소정천(少淨天) 무량정천(無量淨天) 변정천(遍淨天) 등이 있으니, 이를 삼선천(三禪天)이라 한다.

다시 그 위에 무운천(無雲天) 복생천(福生天) 광과천(廣果天) 무상천(無想天) 무번천(無煩天) 무열천(無熱天) 선견천(善見天) 선천(善現天) 색구경천(色究竟天) 등 아홉 하늘이 있으니, 이를 사선구천(四禪九天)이라 한다. 위의 초선(初禪), 이선(二禪), 삼선(三禪)의 각 삼천(三千)을 합하면 구천(九天)이요, 이 구천과 제사선천(第四禪天)의 아홉 하늘을 합하면 이른바 색계십팔천(色界十八天)이 되니, 이들은 오욕락(五欲樂)을 벗어났으므로 용모가 편안해 보이는 미색(美色)이 되었다는 뜻에서 색계(色界)라 한다.

경전속의 세계 삼천대천세계·향수해·정토로 설명

삼신이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불국토설이 있으나 모두의 공통점(共通點)을 찾다보면 국토의 형식은 정토(淨土)와 예토(穢土)요, 그 국토들이 생겨나는 원인으로서 불보살님들의 원력과 증생들의 업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세 종류의 불국토 중 삼천대천세계는 예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순전히 정토니, 예토에 태어난 우리들도 정업을 쌓으면 모두가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불국토설의 근본취지이다.

이들 중,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구조를 설명하려 한다. 삼천대천세계의 기초단위는 동불바제주(東弗婆提洲), 남섬부주(南瞻部洲), 서구아니주(西瞿耶尼洲), 북구로주(北俱盧洲) 등 사주세계(四洲世界)와 일월(日月)과 수미산(須彌山)과 칠금산(七金山) 팔향수해(八香水海)와 위로 육욕천(六欲天)까지를 묶어서 육계(欲界)라고 하니, 오욕락(五欲

일사천하(一四天下)의 면적(面積)은 색계(色界)초선천(初禪天)과 같은데 그것(一四天下+初禪天)을 천 곱하면 소천세계(小千世界)라 하고, 그 넓이는 색계(色界)이선천(二禪天)과 같다. 소천세계를 천 곱하면 중천세계(中千世界)라 하니, 그 넓이는 색계(色界)삼선천(三禪天)과 같다. 중천세계를 천 곱하면 대천세계(大千世界)라 하니 그 넓이는 색계(色界)사선천(四禪天)과 같다. 이렇듯 세 차례를 곱해서 천 곱을 했기 때문에 삼천(三千)이라 하고 마지막이 대천세계(大千世界)이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라 한다. 이 삼천대천세계를 단순히 대천세계, 또는 세계라고도 하고, 일불세계라고도 하니, 이것이 한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요, 백억(百億)세계(世界)라고도 하니, 천을 세제곱한 수치(數値)는 십억(十億)이 되어야 하지만 고대(古代) 산법(算法)으로는 백억이 되기 때문이다. **봉선사 조실**



禪 :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라 김성우 지음 | 무한 퍼냄 | 1만5000원

禪은 끝없는 초월과 자기혁신의 길

“없는 곳이 없으며, 또한 없고 없더라.”
살아 머무는 곳 어디나 ‘무무당(無無堂)’으로 삼아온 저자는 일상의 선(禪)을 한 권의 책에 보듬는다. <禪: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라>는 ‘분별 않고 머무름 없는 텅 빈 충만으로 살라’고 읊조리며 일상의 삼매를 구현한 수행일기다. 현재 현대불교신문 취재 부장으로서 한국불교 현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먼저 관통하는 위치에 서있는 저자(김성우·사진)가 2년 전 부친 원미산의 또 다른 무무당에서 마음의 파랑새와 대화 나눈 문답을 펼쳐 보인다.

“한 생각 일으킬 때가 수행할 때다.”
저자는 참선이란 결코 좌복 위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24시간을 끌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24시간을 부리는 당당한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다. 순간순간 한 생각 일으킬 때 비로소 일상은 깨어있는 삶이 된다. 마음 도리를 모르면 백보를 뛰어도 종종 걸음에 불과하지만, 그 도리를 알면 앉은 자리에서 한 생각에 천리를 느낀다. 마음이 주인이자 부처이므로 한 생각 일으키면 문수요, 움직이면 보현인 것이다.

책 속에는 저자가 운영하는 넷사랑 구도여정(cafe.daum.net/kudooyukjung) 회원들뿐만 아니라 절에서 만난 스님과 거사, 보살들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구도자들이 등장한다. 25년여의 구도여정 중 절



야정진과 일상 속 선수행 속에서 체험한 저자의 법열(法悅)은 세상이 행복보다 불행이 많다고 여겨온 세간인들에게 감인(愍忍)이 아닌 환희의 불야성(不夜城)을 선사한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자들의 생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한 저자의 배려 깊은 경험담이 마치 맞춤형에 비바린 한 그릇의 비빔밥을 연상케 한다. 지난해 발간된 <선답>이 한국의 선문답을 저자 나름대로 해설한 것이라면 <禪: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라>는 공안의 깊고도 깊은 깨달음의 향훈이 가득한 원만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선(禪)의 의미를 알지만 행(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禪)을 바로 체득하지 못한 것과 같다.”

저자는 내가 살아 숨 쉬는 이곳이 바로 ‘극락’이라고 말한다. 일체가 마음에서 드러난 것임을 확신하는 기쁨으로 자다가도 웃는다. 불혹(不惑)의 여정에 선 선재동자는 선(禪)이야말로 끝없는 초월이자 자기 혁신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서서히 보현행의 관문을 넘어선 선재는 ‘자기계발과 선(禪)’을 화두로 집필중이다.

“알 또한 알음알이가 되면 안돼.”

저자는 일체가 자심소현(自心所顯)임을 깨닫는 환희심에 대해 ‘100% 믿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는 전도몽상된 현재의 나를 돌아볼 때 비로소 실체는 드러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한 권에 농축된 저자의 끊임없는 행입(行入, 실천행)의 갈무리는 독자로 하여금 여실지견(如實知見)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연속기자 omflower@buddhapia.com**

각 지방 특색 살린 사찰중심 답사



‘대동지리지’ 총복·총남대전 편 박성현 지음 | 겨레출판사 | 1만8000원

20년 간 전국 사찰 3만여 곳을 순례하며 1만 2000여 곳의 자료를 수집, 그림지도와 그곳에 얽힌 점집이야기를 모은 <대동지리지> 총복·총남대전 편이 출간됐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환상한 듯 저자의 사찰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특색, 문화, 관광 등을 두루 담았다.

한 때 세상이 되는 일이 없다 여기며 하는 것마다 실패의 연속이던 저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죽음자리로 찾아 들었던 지리산에서 희망하게나마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고 회상한다. 오직 걸어서 전국 산속에 산재된 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한 그는 작은 사찰까지 상세한 그림과 조감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혜철 총정지서장**

마치 기억할 수 없는 운명처럼 20여 년을 산속 유명사찰에서부터 작은 토굴에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제야 깨달은 바가 있어 되돌아보니 스님들의 청정한 마음자리만이 부족한 마음을 채워줍니다. 세상에서 일고자 했던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시대의 역사를 그려보고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현대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성과 근본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하는 저자는 작은 절집일 수록 맑고 청정하며 도가 높은 스님들이 많다고 강조한다. 일일이 산과 들을 떠돌며 절들을 표시하고 ‘전국사찰지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려 노력했던 여정이 오롯이 담긴 <대동지리지>에는 20년간 인연 맺은 스님들의 마음자리도 알알이 담겨있다. **혜철 총정지서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답답하면 물이라	법륜	정토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4	연천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한권으로 읽는 빼알리경전	일야 역편	민족사
7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8	아발로키테스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윤주사
9	인과경	현담	선
10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대행	한미음선원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승 12권 출간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가격 15,000원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곁집한 선문염승.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분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집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범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았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기부법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승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승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바시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거제도 총영사 미디어후불명화

거제도 총영사 신중명화 **거제도 총영사 칠성명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대웅전 건립불사
천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바랍니다

봉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득] 정진기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께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어갈 수 있도록 정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